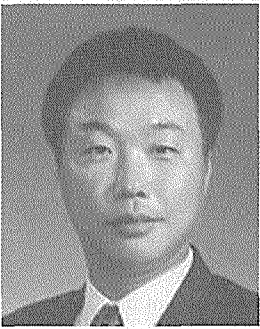


국내 정유산업도 동북아 진출로 활로를



장 현 준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소비지정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보다
자국의 수요규모에
상응하는 정제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 리 나라 석유산업은 종전과 같이 앞으로도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의 정제능력 과잉상황으로부터 제기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유를 도입하여 소비지에서 정제하는 것이 제품수입에 비해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지정제의 안정성 측면은 원유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자국의 수요구조와 품질규격에 맞는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제품이 원유에 비해 수량 및 가격의 변동폭이 크므로 원유를 도입하여 자국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국내 공급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유리하다는 논리다. 소비지정제의 비용효과성은 원유가 석유제품에 비해 대형 탱커로 수송되므로 운임이 저렴하고 저장에 용이하여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지정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보다는 자국의 수요규모에 상응하는 정제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석유제품 순수입 또는 순수출의 비율이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내수요의 20%를 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물론, 석유제품이 연산품이라는 석유산업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은 내수 중심의 산업이면서도 일정 물량의 제품수출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석유제품은 선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병행하여 생산되므로 특정 제품의 증산과 감산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한 연산성은 생산구조와 수요구조의 불일치로 제품별 과부족물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1990년대 중반에 경쟁적으로 정제능력을 확장하여 국내 총 정제능력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연평균 12%씩 증가하던 국내 석유수요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전년대비 16% 감소하였고 1999년 이후 수요가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그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의 과잉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정유회사들은 잉여 정제능력을 활용하여 석유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설비가동률을 높였다. 그렇지만 석유제품 수출이 충분한 수익성을 갖지 못하여 정제능력의 과잉은 정유회사들의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초과 정제능력이 현재 국내 석유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석유산업이 내수 중심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내수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정제시설을 보유하면서 아·태지역의 석유제품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국제 석유시장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경에 두고 있다. 그것은 싱가포르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막대한 저유능력을 보유하여 제품의 저장과 블렌딩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수출입이 자유로와 교역량과 위탁정제량이 많다는 점, 통신·항만·운송 등 하부구조가 선진화되어 있고 금융·무역업자의 밀집으로 정보교환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석유산업도 동북아지역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전체 석유소비의 18%를 차지하는 대 소비지역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1999년 석유소비 규모는 일본이 5.7백만B/D로 세계 2위, 중국이 4.4백만B/D로 세계 3위, 한국이 2.2백만B/D로 세계 6위, 대만이 0.8백만B/D로 세계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석유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0년경에 이르면 일본의 소비규모를 상회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이 유럽의 석유소비 규모를 추월하여 세계 주요 석유소비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어, 동북아지역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석유산업도 동북
아지역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새로
운 도약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 대만은 소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내 석유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의 원유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1999년에 74만B/D의 원유를 역외에서 수입하였다.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석유수요 증가와 더불어 이 지역의 원유물동량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석유제품 교역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정제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정제가동률이 저하되는 반면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증가하여 그 수입량이 1백만B/D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신규 정제시설의 건설을 추진중이나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수년간 4~6십만B/D의 석유제품 순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석유소비 및 석유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석유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동북아시아는 이미 석유교역량이 매우 큰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석유제품의 가격은 싱가포르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유일의 국제적인 석유시장이지만 원유와 석유제품의 거래규모가 적어서 구미의 석유시장과 같이 성숙되지는 못하였다. 원유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기준 유종인 두바이의 유동성 부족으로 구미시장의 기준 유종인 WTI, 브렌트와의 품질차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 제품의 경우도 싱가포르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북아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는 대 석유소비국이 밀집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석유산업은 동북아시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석유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의 석유제품
수입수요에 부응한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잠재력중 하나는 대형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항의 수심이 얇아 대형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환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본도 정유공장이 밀집한 태평양 연안의 수심이 얇을 뿐더러 소규모 정유공장이 대부분이어서 오키나와, 기이레 등의 중계기지를 이용하여 정유

공장까지 2차 수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동북아지역 석유물류의 중계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국내 정유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단위 정유공장과 충분한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유회사들은 주변국의 석유제품 수입수요에 부응한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석유산업은 이러한 잠재역량을 지닌 반면에 동북아 석유시장의 중심에 서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석유저장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저장시설의 확보는 동북아 석유물류의 중계기지로써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현재 정유회사들이 보유한 저장시설은 석유사업법에 규정한 저장시설 설치의무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며 여타 독립계 저장업자들의 저장시설도 전무한 실정이다. 저장시설의 확대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석유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정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질·고유황인 중동산 원유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상승은 불가피하나, 국내 정제시설은 상압정제능력에 비해 분해시설과 탈황시설 등 2차 정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정유회사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이로 인한 차입금이자 부담 등은 정제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 및 정보의 하부구조가 구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동북아 석유교역의 활성화는 다양한 금융수요와 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나, 국내 금융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낙후되어 있고 석유와 관련한 정보도 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석유산업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산유국 및 메이저와도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때, 우리의 석유산업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있고 국제화된 석유산업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석유산업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산유국 및 메이저와도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때,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있고 국제화된 석유산업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